

「향랑전」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김세라(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죽음을 보는 작자의 시각과 의미 |
| 2. 향랑의 죽음과 그 의미 | 4. 결론 |

1. 서론

향랑은 선산의 평민 여성으로, 남편의 박대 끝에 친정으로 돌아와 재가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향랑의 이야기는 18세기 문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각종 장르의 문학작품의 소재로 채택되었다¹⁾. 그 중에서 향랑의 이야기를 다룬 전(傳)은 조귀상(趙龜祥)의 「향랑전」(香娘傳), 이광정(李光庭)의 「임열부향랑전」(林烈婦薌娘傳), 김민택(金民澤)의 「열녀상랑전」(烈女尙娘傳), 윤광소(尹光紹)의 「열녀향랑전」(烈女香娘傳), 이안중(李安中)의 「향랑전」(香娘傳), 이옥의 「상랑전」(尙娘傳) 등 총 여섯 편이 있다.

전은 주로 규범적인 인간상을 칭송할 목적으로 쓰여지는데, 각 편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향랑은 열녀(烈女)로 입전된 경우이다. 조선 후

1) 아래에서 언급할 6편의 전 이외에 한시와 산문으로 기록된 것도 많은데, 한시 작품은 최성대(崔成大), 이안중(李安中), 이덕무(李德懋), 김창흡(金昌翕) 등에 의해 10여 편이 지어졌고, 산문은 신유한(申維翰), 엄경수(嚴慶遂) 등에 의해 기록된 것이 남아있다.

기가 되면 절사(節死)한 여성만이 열녀전의 입전대상이 되므로 이 시기의 열녀전에서 여성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향랑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향랑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향랑에 대한 연구는 박옥빈²⁾에서 시작된 이래, 조혜란³⁾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향랑 사건의 다양한 문학적 전환 과정에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삼한습유』의 前史로 다루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주목할 만한 연구로 정출현⁴⁾은 열녀 탄생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향랑전을 살펴보았는데, 열녀 탄생은 당대 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논의를 보충하여 최지녀⁵⁾는 기존 연구에 더 나아가 향랑전과 향랑 전설에 나타난 향랑의 형상화 방식을 비교 대조하여 살펴보았다. 향랑 이야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향랑을 통해 어떤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향랑을 다시 쓰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위 논문들은 전대의 초기연구보다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향랑을 살펴보려고 했던데 의의를 지니지만 향랑 이야기의 본질 보다 남성 사대부들에 의해 열녀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주목한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토록 사대부에 의해 찬미되었던 강한 의지의 ‘열녀로서의 향랑’이 아니라 그 동안 간과되었던,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죽음 앞에서도 두렵고 외로웠을 뿐인 한갓 젊은 여인이었던 ‘향랑’의 모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녀가 죽음을 택하게 되는 까닭을 해명하고 죽음 앞에서의 향랑의 태도와 그것을 보는 작자의 시각을 분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향랑의 신분과 당대의 열녀규범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랑전』에 나타난 죽음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박옥빈, 『향랑 고사의 문학적 연변』,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2.

3) 조혜란, 『三韓拾遺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4)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탄생의 메커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5) 최지녀, 『香娘』을 형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 향랑전과 향랑전설, 『국문학연구』 제19호, 국어국문학회, 2009.

2. 향랑의 죽음과 그 의미

2.1. 향랑의 죽음의 원인

향랑이 죽은 것은 숙종 28년인 1702년의 일이다. 이 때, 선산의 부사였던 조귀상은 향랑의 죽음에 관한 보고를 듣고 같은 해에 향랑의 행적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향랑전」이다. 「향랑전」은 향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동시에,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므로 우선 이 작품을 통해 「향랑전」의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향랑은 일선부(一善府) 상형곡(上型谷) 양인(良人)인 박자갑(朴自甲)의 딸로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정숙했으며, 계모가 그녀를 구박했으나 늘 순종했다. 향랑은 17세에 칠봉(七奉)이라는 14세 소년과 결혼하게 되는데 칠봉은 향랑을 원수처럼 여기며 때리곤 했다. 향랑은 3년을 참다가 결국 친정으로 쫓겨 가는데, 다시 계모가 구박하여 아버지는 향랑을 숙부에게로 보낸다. 두어 달 후 숙부는 향랑에게 재가를 권하는데 향랑은 이를 거절한다. 그러자 숙부는 향랑을 박대하기 시작했고 향랑은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학대는 더욱 심해지고 심지어 시아버지조차 향랑에게 재가를 권한다. 이에 향랑은 죽을 결심을 하고 강가로 가 소녀에게 치마와 짚신을 맡기며 자신의 죽음을 알리도록 하고 산유화 한 곡을 가르쳐준 후 물에 빠져 죽는다. 향랑의 아버지는 14일 동안이나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시체가 얼굴에 적삼을 뒤집어쓰고 떠오른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향랑은 재가 요구를 거부하다가 자살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향랑의 재가거부가 혼인에 대한 일종의 혐오 내지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포악한 남편에게 시달렸던 향랑에게는 재가가 별 희망 없는 일로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랑이 결혼생활에 혐오(厭惡)를 느껴 재가를 거부한 것이라면 시가로 돌아가 자신을 다시 받아주기를 청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향랑은 시가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심지어 울타리밖에 흙집을 지어주면 평생 거기서 살겠다고 말하기도 한다.⁶⁾ 절의를 지키려는 향랑의 의지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맹목적인 것

6) “舅若造土宇于籬外以容我，則我當終身於其中矣.”(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을 알 수 있는데, 개인과 가문의 영광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절했던 사대부 여성과는 달리 평민여성의 수절은 명분이 없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을 위해 절의를 지키려했던 향량의 생각은 자신의 삶의 조건과는 동떨어진 사대부 계층의 관념을 내면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절에 대한 향량의 생각은 실제의 삶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스스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제도에 의해 강요된 생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향량의 정절의식을 허위의식이라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봉건제 하의 여성이 한 남성에게 대해 맹목적으로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열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향량은 17세기 이후의 사회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 이데올로기에 깊이 침윤된 존재였다. 향량이 극단적으로 재가를 거부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향량이 살아있는 남편에 대한 절의를 굳이 죽음으로 표현해야 할 까닭은 없었다. 그렇다고 향량에게 급박한 궤절의 위협이 가해졌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향량을 죽음에 이르게 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향량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향량이 ‘사대부의 의식을 내면화한’ 평민이었다면 재가를 권한 주변 사람들은 ‘평민의 의식을 지닌’ 평민이었다. 양측은 재가 권유와 그것의 거부를 통해 대립했고, 이 대립은 필연적으로 향량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평민의 세계’에서는 향량만이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세계는 향량이 수절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향량의 가족과 친지는 향량의 재가가 자신들에게는 물론 향량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이들이 재가를 거부하는 향량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주위 사람들과 다른 윤리규범을 준수하고자 했던 향량은 결국 공동체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절망감과 고립감이 향량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향량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개가시키려 하자 죽음을 결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모는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남편은 나를 아내로 여기지 않고, 시부모는 나를 며느리로 여기지 않네. 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꼬.”⁷⁾

“부모도 받아주지 않고 시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 운명이로다. 내 어이 살아 갈꼬.”⁸⁾

향량은 재가를 강요하는 친정식구와 시부모 사이에서 갈 곳을 잃는다. 이 글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누구에게도 의지할 바 없이 버려졌다는 처절한 고립감이 나타나있다⁹⁾.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재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면 향량은 굳이 죽음을 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즉, 향량은 재가를 거부하여 남편에 대한 절의를 지킬 생각이었지만 처음부터 죽을 생각은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향량은 절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절의를 지킬 방법이 없어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향량이 사대부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함으로써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는 주체적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¹⁰⁾. 향량의 죽음은 외부에서 보면 ‘烈 이데올로기’에 의한 희생에 불과하지만 이미 ‘烈’을 하나의 신념으로 간직 한 향량의 입장에서 보면 소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물론, 평민 여성이 상층의 이데올로기를 빌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주체적 삶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에는 분명 소극적이고 퇴행적(退行的)인 면모가 있다. 그러나 평민 여인이 공동체의 의식에 반(反)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으리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지배담론을 통해서나마 자신이 뜻하는 바를 드러낸 향량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는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향량의 죽음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희생의 성격에서 근본적으로 벗어

7) “父母不以我爲子, 夫不以我爲妻, 姑舅不以我爲婦, 我何以入於世乎?”(李光庭, 『林烈婦戀娘傳』, 『訥隱集』)

8) “不容於父母, 不容於夫家, 命也, 吾何以生爲?”(尹光昭, 『烈女香娘傳』, 『素谷集』)

9) 향량의 경우 고립감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친모(親母)의 부재였다.

10) 향량이 자신의 인간적 각성을 ‘열’이라는 지배담론의 논리를 빌어 표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박혜숙 선생이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민족문화사 연구』9, 창작과 비평사, 1992에서 언급한 바 있다.

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향량은 평민이면서도 상층의 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절의를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평민의 현실적인 조건들은 향량이 수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향량은 평민의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그러나, 향량의 죽음은 모순된 제도에 의한 희생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부정적 수단을 통한 것이긴 하나 평민 여성의 주체적 삶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2. 죽음 앞에서의 태도

『향랑전』의 작자 조귀상은 선산부사로 부임한 지 몇 개월 후에 약정(約正)의 보고서를 통해 향량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고¹¹⁾, 사건의 목격자인 나무하는 소녀를 불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²⁾. 소녀가 향량의 사연을 전하는 부분은 하나의 액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 간의 사연과 죽음을 앞둔 향량의 감정을 소상하게 담고 있다. 향량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 나이를 밝히고 시집을 간 후부터 지금까지의 사정과 죽음을 결심하게 된 심경을 토로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사연을 글이나 말로 남겨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또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구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량의 경우에는 후자의 측면이 강해 보인다. 우선, 향량은 당시 20세였고 소녀는 12세였다. 소녀는 향량의 신산한 삶을 이해하기에 어린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향량은 소녀를 우연히 만난 것을 몹시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나는 내 죽음을 명백히 할 수 있겠다. 너와 내집은 가까우니 네가 내 말을

11) “壬子之秋，余莅一善過數月，而南面約正文狀至。”(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12) “余招其樵女，而問之。”(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전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 목숨을 버리려 이 못에 왔단다. 그러나 죽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이 있는 의심할 것이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만난 것은 하늘이 그렇게 해 준 것이다. 사람을 만났더라도 남자아이였으면 말을 걸지 못했을 것이고 장성한 여자였으면 필히 나의 죽음을 막았을 터인데 너는 어리고 총명하지만 나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나의 아버지에게 전언할 수도 있으니 이 어찌 천행이 아니겠느냐. 13)

향량은 내외(內外)하지 않고 직접 말을 건네 사연을 전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죽음을 저지할 수 없는 적절한 상대를 만난 것을 몹시 기뻐하고 있다. 이 때 향량에게 소녀가 어리고 약한 존재라는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녀를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 줄 도구적 존재로만 생각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소녀가 두려움 때문에 향량의 죽음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달아나려 할 때, 향량이 소녀를 쫓아가 붙들어서 다시 물가로 데려오는 적극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준다.¹⁴⁾ 아직 어린 소녀에게 죽음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은 무척 잔인하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량은 소녀가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낱낱이 목격하고 정확히 전하기를 바란다. 소녀의 두려움이나 괴로움 따윈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의지만을 집요하게 관찰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향량은 자신의 죽음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한다.

그러나 일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필히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 숨어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니 어찌 심히 억울하지 않겠는가!¹⁵⁾

만약 부모님이 내가 도망가 숨어버렸다고 의심한다면 죽어도 남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16)

13) “且雖逢人而男兒則不可與語，壯女則必止我死，汝則年幼而性慧，不能挽我，而能傳我言於我父，此又非天幸乎？”(趙龜祥，『香娘傳』，『海叢』冬)

14) “將有投水之狀，兒不勝恐懼，起身走來，則其女追至挽兒，復到淵上。”(趙龜祥，『香娘傳』，『海叢』冬)

15) “雖然，事不明白，則父母舅姑，必疑我潛逃他適，豈不冤甚乎？”(趙龜祥，『香娘傳』，『海叢』冬)

16) “父母若以潛奔爲疑，死亦有餘痛？”(尹光昭，『烈女香娘傳』，『素谷集』)

인용문에서 향량이 자신의 죽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까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량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절의와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량의 경우는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렸다는 의심이 곧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에 해당하므로 향량은 이러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소녀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게 하고 이를 전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향량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烈'이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했음을 뜻한다. 향량은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죽음을 택하게 되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다시 열이데올로기에 의지하여 자신의 죽음을 정당화시켜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죽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결백만은 밝혀야 한다는 사대부 여성들의 관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평민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재가를 거부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향량이 스스로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자존의식의 발로로 해석될 여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열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의 향량의 면모이다. 가장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자신의 절의를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던 향량의 모습에서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烈'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왜곡시켰는가 하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향량이 이데올로기의 실제적 구속에서 벗어나 있는 하층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왜곡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향량이 죽음의 경위를 집요하게 밝히려 한데는 자신의 결백함을 알 아주기느커녕 절의를 지키려는 자신의 뜻조차 받아들여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도 섞여있었다. 향량은 자신의 의지가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데도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세상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량은 “내 장차 돌아가 지하에서 어머니를 뵈고 만단의 슬픔과 원한을 말하리라.”¹⁷⁾라고 하여 세상에서 고립되어 원한의 감정마저 밝히지 못하는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또, 소녀에게 다음에 나무를 하러 왔을 때 자신을 위해 산유화를 불러주면 자신의 혼백이 그것을 알 것이라

17) “吾將歸，見我母於地下，說此萬端哀怨耳。”(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하여 분노에 가까운 강한 고립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¹⁸⁾.

향량의 고립감은 향량이 죽기 전에 소녀에게 가르쳐준 <산유화가>에서 잘 나타난다. 향량이 소녀에게 남긴 말이 사실의 술회와 남은 사람들에 대한 당부에 가깝다면, 노래는 죽음을 앞둔 향량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유화가>가 직접 제시되는 작품은 조귀상의 『향량전』, 이광정의 『임열부향량전』, 이안중의 『향량전』, 이옥의 『상량전』 등 네 편의 작품인데 그 중 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何高遠	하늘은 어찌 이리 높고도 멀며
地何廣邈	땅은 어찌 이리 넓고도 아득한가.
天地雖大	천지가 비록 크다고들 하지만
一身靡托	이내 한 몸 의탁할 곳 없구나.
寧投此淵	차라리 이 연못에 몸을 던져
葬於魚腹 ¹⁹⁾	물고기 밥이나 되어 버릴까나.

인용된 부분은 조귀상의 전에 나오는 <산유화가>인데 다른 작품의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²⁰⁾ 향량은 갈 곳이 없어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절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같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향량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낀 가장 절실한 감정은 깊은 좌절감과 세상으로부터의 격절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 자결을 택하게 된 향량은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독한 존재였다. 향량은 ‘평민 세계’에서 소외됨으로써 죽음으로 내몰렸을 뿐 결코 스스로 죽음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죽음 직전의 향량에게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다.

18) “曰: ‘勿怖也。我教汝歌一曲, 汝須記誦。他日以取柴來此地, 以此歌唱山有花一曲, 則我之魂魄, 必知汝之來。俯視滄浪, 如有洶湧之處, 知我之魂魄遊戲於其中也。’”(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19) 趙龜祥, 『猶賢集』, 『山有花曲』 한국역대문집총서, 경인문화사, 1999, 454면.

20) 이안중의 『향량전』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다.

다시 물에 뛰어들려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죽기로 이미 결심했지만 물을 보니 더욱 두려워 차마 몸을 던질 수가 없구나. 가련하다. 내 차라리 물을 보지 않으리라” 하고는 적삼을 벗어 얼굴을 덮고 물을 보지 않은 채 뛰어 들었다.²¹⁾

향랑은 두려움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말하고 적삼으로 얼굴을 가림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 작자들이 향랑의 죽음을 찬양하였지만, 죽음 직전의 향랑의 모습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결코 ‘烈’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위하여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장렬하게 죽어 가는 여성의 모습이 없다. 왜곡된 신념에 의해 죽음 앞에 섰으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두렵지만 결국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향랑의 모습에서 열 이데올로기와 신분제도의 이중적 희생자로서의 향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죽음을 보는 작자의 시각과 의미

3.1. 서사의 의론과 그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고려하면 향랑의 죽음은 단순한 열녀의 죽음으로 취급될 수 없다. 향랑이 평민이라는 점과 그 주변의 상황, 그로 인하여 향랑이 죽음을 택하게 되는 정황적, 심리적 과정을 함께 살펴야 향랑의 죽음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정을 조귀상의 전을 중심으로 6편의 전의 서사부분을 통하여 살펴왔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전은 의론(議論)과 서사(敘事)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각 전의 서사와 결합되어 있는 의론은 향랑의 죽음을 열녀의 죽음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랑이 유래 없이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입전된 주된 이유는 향랑이 평민이고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도 죽음으로써 절의를 지켰다는 사실에 있다. 즉, 향

21) “一死已決，而見水猶有惧心不忍投，可憐也。吾寧不見水矣。遂脫衫蒙其面，使不得見水而後一躍，而永投於水中。”(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랑의 이야기가 색달랐기 때문이다. 색다른 이야기로 전을 쓴다는 것은 서사의 성격이 예전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렇다면 의론의 성격도 달라지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향랑의 입전자들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색다른 서사와 틀에 박힌 의론을 결합했다²²⁾. 그 결과 『향랑전』은 서사와 의론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간극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간극의 크기는 작자들의 의식의 허위성을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향랑전』의 작자들이 유난히 강조하는 점은 향랑이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열행을 하였다든 것이다²³⁾. 열녀전은 여인의 열행에 감동한 문사의 기록인 동시에 여성교화서이기도 하다. 즉, 귀감이 되는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작자들은 향랑의 죽음을 찬미하면서 사대부 부녀들의 절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함을 개탄한다²⁴⁾. 그렇다면 이들이 향랑의 신분을 굳이 강조한 까닭은 여성일반을 교화함은 물론 특히 사대부 여성들을 경계(警戒)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작자들은 처음부터 ‘사대부 부녀보다 뛰어난 절의’라는 시각으로만 향랑의 죽음을 보았고, 따라서 향랑의 신분이 주는 현실적 제약이나 향랑의 내면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재가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평민여성의 현실이나 죽음 직전에 향랑이 맞닥뜨린 절망과 고독은 이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논찬부(論贊部)에서 향랑이 자결한 사실만을 아름다운 것으로 부각시킬 뿐,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반 조건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향랑이 상민의 딸이라는 사실만을 죽음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인양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작자들이 향랑의 죽음을 단순히 절의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교화적인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선산이 아은(治隱) 길재(吉再)

22) 이대형은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에서 『향랑전』을 의론과 서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한 바 있다.

23) “而不料無識村氓之女，有此卓絕之行也。雖比於古之烈女，何以加此，其處事之明白，就死之從容。”(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娘亦窮閭賤婦耳。能守身潔行從容就死如此。”(金民澤, 『烈女尙娘傳』, 『竹軒集』)

“彼香娘賤人，父負薪，母織賣麻，爲生。而娘生長其家，其所習乃不過如此，然所謂卓卓。”(李安中, 『香娘傳』, 『海叢』冬)

24) “貴人鉅族，反鮮觀焉，余竊異之。”(金民澤, 『烈女尙娘傳』, 『竹軒集』)

“彼冠裳鳴佩之夫，臨利而喪其守者。”(尹光昭, 『烈女香娘傳』, 『素谷集』)

의 유풍을 간직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조귀상은 선산에 대대로 절의 있는 인물이 많아 가족까지도 절의가 있음을 칭송하고 있으며²⁵⁾, 윤광소는 향량의 ‘烈’이 유래가 오랜 것으로 길재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²⁶⁾. 실제 향량이 길재의 지주비(砥柱碑) 근처에서 자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길재의 유풍(遺風)의 영향으로 해석하거나 두 가지 사실을 묶어 선산을 절의의 고장으로 추켜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향량의 죽음을 결과로만 보고 그 자체에 ‘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사회적인 의(義)로 확대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사대부 여성의 순절을 가문의 전통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질서의 회복을 도모했던 열녀전의 관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향량의 경우는 신분이 낮으므로 길재의 이야기를 끌어와 기존의 형식을 답습했다고 할 수 있다.²⁷⁾

무엇보다 사건의 실상과 어긋나는 것은 향량이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었다는 사실이 향량의 말과 <산유화가>에서 확연히 드러남에도 이들은 향량의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인 결연한 죽음으로만 보려 한다는 점이다. 작자들의 의론에는 향량의 죽음에서 느껴지는 처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아픔 담고 숭고한 죽음만이 남아있다. 이는 향량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서술을 작자들이 단순히 생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건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5) “唯善爲邑，自古忠孝節義之代有聞人，至於畜物亦有義死之稱。”(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26) “治隱吉再之忠，隱於金烏山以終。善之有節烈，由來遠矣。”(尹光昭, 『烈女香娘傳』, 『素谷集』)

27) 여기서 말하는 砥柱碑란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善山에 은거하던 吉再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柳雲龍이 낙동강 지류인 吳秦江 가에 세운 것이다. 그리고, 지주비가 서 있는 그곳은 바로 향량이 몸을 던진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적 일치는 당대인들이 그토록 향량의 죽음을 길재의 충절과 연관시키려 했고, 나아가 국가 열녀로 부각시키려는 일차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길재와 향량을 연결짓는 공간, 곧 蘿月峰 기슭의 우뚝 솟아오른 그 봉우리는 지주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또한 향량이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장소였을 따름이다. 길재의 무덤에서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는 그곳은 오대강이 휘감아 도는 곳으로 지주비를 세운다면 그곳밖에 달리 없으며, 향량의 고향인 荊谷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곳은 강물에 몸을 던지려면 그곳밖에 달리 없다. 이런 우연과 필연의 교차가, 향량을 그토록 주목받는 국가 열녀로 만드는 데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3.2. 개작을 통한 서사와 의론의 합일

주지하다시피 전은 서두부(도입부), 행적부(내용부, 전개부), 평결부(논찬부, 결말부, 논평부)의 삼단구성이 통설이 되어왔으며, 서두부에서는 가계와 출생사항이, 행적부에서는 평생의 행적 또는 특이한 행적이, 그리고 논찬부에서는 저자가 부가하고자 하는 의론이 다루어진다. 그런데 향량의 이야기는 다른 규범적 열녀전에 비해 주목할 만한 요소가 많다. 그러나 작자는 스스로 향량의 이야기를 옮겨 서술했으면서도 서사가 담고 있는 진실, 가령 향량이 재가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조건이나 산유화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향량의 심경 등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작자는 텍스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을 읽었고 이는 그의 의식이 그만큼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대부 남성인 작자는 평민 여성인 향량에게 이중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거리를 좁혀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결과 『향량전』의 서사와 의론은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게 되었다.

조귀상의 전을 비롯한 5편의 전이 이와 같이 서사와 의론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면 이안중의 전은 서사와 의론 사이의 모순을 의식하고 서사를 적극적으로 개작한 경우이다. 이안중의 전도 의론부분은 나머지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향량의 절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사에 문식(文飾)을 가함으로써 서사와 의론의 일치를 도모하고 있다. 비교적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며, 고루한 선비의식에 젖어있지 않은 담정그룹조차도 향량에 대한 고루한 평가가 확인된다. 이를 다음 의론 부분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이광정²⁸⁾ - 야사는 말한다. 내가 일찍이 남쪽을 돌아다니다 이른바 금오산에 푸른 벼랑이 우뚝한 것을 보았었다. 기이하도다! 오산을 이르러 길재의 사당을

28) 野史曰。余嘗南遊。觀所謂金烏山。蒼峭壁立。異哉。過詣吳山。謁吉子祠。竹林中風蕭然。有曠世之感。東循前臺。下俯江流。摩挲石碑。高數丈。所刻砥柱中流四字畫大如手。方吉子之隱烏山。金先生澍亦一善人。奉使上國還。至江回輪。蓋義不事二姓云。烏山洛江之間。自古多節義男子。人言女性畜性蠶。未爾。吾意天地之正氣萃于茲土。鍾英毓秀。無間於人。物男女貴賤與。抑其諸先生之遺風餘烈。振動今古相感奮。有以也。不然。林烈婦之死於砥柱碑下。何其奇也。趙守記畫而傳之世。其知教哉。吾故列其事。附以所聞見如是。後之覽者。知所興起焉。

배알했는데 대나무 숲에 바람 소리가 쓸쓸하여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동으로 앞 누각을 따라 아래로 강물을 굽어보니 잘 다듬은 돌비석이 있는데 높이가 여러 장이었다. 그곳에 세긴 '지주중류'라는 네 글자는 획이 손바닥만하게 컸다. 바야흐로 길재가 금오산에 은거하고 있을 때 선산 사람인 김주 선생도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다 압록강에서 배를 돌려 버렸으니 아마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의리에서였을 것이다. 금오산과 낙동강 사이는 옛날부터 절의 있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여자들도 속 좁지 않고 짐승들도 어리석지 않다고들 한다. 내 생각에는 천지의 바른 기운이 이 땅에 모여서 이런 정신을 기르되 사람과 동물 남자와 여자, 귀한 이와 천한 이의 구별이 없이한 것이요 여러 선생께서 남긴 공교와 義烈이 고금을 진동시켜 서로 감화를 일으킨 까닭인 듯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임열부가 지주비 아래에서 죽은 것은 얼마나 기이한가. 조태수가 글과 그림으로 그 일을 세상에 전한 것은 교화를 앞이로다. 내가 그런 까닭으로 그 일을 늘어놓고 내가 듣고 본 것을 이와 같이 덧붙이니 나중에 살펴보는 자가 흥기됨을 알 것이다. 29)

29) 나머지 전의 의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곤 <아이> 상량은 궁벽한 시골의 한 여자이니 평소 어찌 시경이나 예기를 배우고 어미의 훈계를 들었을 것인가. 그런데도 대의를 알아 우뚝 스스로 서서 죽는 것을 그저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진실로 타고난 성품이 곧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같은 시대에 살던 문사들이 상량의 일을 듣고 다투어 시가를 지어 그것을 노래하였다. 나도 들은 것을 대강 늘어놓아 이와 같이 쓴다. 그 죽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내가 일찍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죽음에 나아가기를 명백하고 조용히 한 것은 비록 지식있는 군자라도 어찌 이보다 낫겠는가. 그렇다면 상량은 남보다 훨씬 어진 것이다. 嗚呼。尙娘窮鄉一女子也。平日豈有詩禮之教。保姆之訓哉。能通知大義。卓然自立。視死如歸。以明其志。苟非天性貞烈。其何能如是哉。一時女士聞尙娘事者。爭爲歌詩以詠之。余亦略述所聞。書之如此。而每想其死時狀。余未嘗不涕下也。其就死明白從容。雖有識君子。何以過此。然則尙娘之賢於人者遠矣。

김민택 <열녀 상량전>- 논하여 말한다. 옛날에는 여자의 교육이 갖추어졌었다. 스승이나 부모의 경계나 시서도사의 가르침이 있어서 노리개를 차고 수건을 두르는 것까지 예가 있지 않음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의를 행하여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귀인거족에서 많이 나왔었다. 우리나라 각 지역 읍지를 보면 종종 한미한 자손과 궁벽한 땅의 사람들 중에도 물가에서 몸을 던지는 기이하고도 높은 행실이 이어지는데, 귀인이나 거족은 도리어 보이는 것이 드무니,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아이! 상량도 궁벽한 시골의 천한 부인일 뿐인데 몸을 담고 행실을 깨끗이 하여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상량 같은 사람은 어찌 천성으로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이! 어찌 스승에게 시서를 배운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論曰。古者女教備矣。有師傅保姆之戒。詩書圖史之訓。至於珩珮巾帨。靡不有禮。是以蹈義守節者。多出於貴人鉅族。及觀東國州郡誌。往往遇裔僻壤。投厓赴河。奇巍卓絕之行接跡也。貴人鉅族。反鮮觀焉。余竊異之。嗚呼。娘亦窮閭賤婦耳。能修身潔行。從容就死如此。若娘者。豈非得於天者耶。噫。豈盡由師傅詩書之教也哉。

윤광소 <열녀향랑전>- 찬한다. 역사는 말하기를 고려 주서 야은 길재가 충성스러워 금오산

이안중 「향랑전」- 태사공은 말한다. 속담에 효자의 가문에 반드시 충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운 것이 있어 그런 것임을 말한 것이다. 저 향랑은 미천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뿔나무를 지고 어머니는 베를 짜는 것을 생업으로 했으니 향랑이 그 집에 나서 자라며 익힌 것이 이것에 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우뚝한 옛 열부도 어찌 향랑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랴. 내가 들으니 선산에는 절개있고 의로운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남자에는 야은 길재가 있고 여자에는 향랑이 있으며 길짐승 중에는 의마 의우 의구가 있으며 날짐승으로는 의계가 있다. 그렇다면 향랑은 천성이 그렇다고 할 것인가 또 사람은 절의가 있다고 하나 오히려 짐승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였으니 더욱 기이하도다. 선산의 산천이 영험해서 이 같은 것을 불러온 것인가. 혹자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선한산(善山)이라는 계지” 한다.

우선, 이안중은 향랑이 죽기 직전까지 시가와 친정, 숙부의 집을 전전한 사실을 대부분 생략한 채, 처음 친정으로 돌아와 숙부로부터 재가권유를 받고 그로 인해 자살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향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고독과 절망을 배제한 채 ‘烈’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향랑의 재혼상대로는 부상(富商)의 아들인 조씨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는 현명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며 향랑을 아내로 맞기를 원한다고 했다³⁰⁾. 남편이 될 사람이 집안이 부유하고 사람됨까지 뛰어난데다 향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향랑에게는 더 없이 좋은 혼처라고 할 수 있다.

“재물로 봐도 김가(金家[처음의 남편]가 조가(趙家)에게 미치지 못하고 사람으로 봐도 조가가 나으니 너는 두말없이 허락해라” 향랑이 말하기를 “제가

에 숨어 삶을 마쳤다 하니, 선산의 절열은 유래가 오랜 것이다. 이제 향랑의 정절로 강에 빠져 들 지경까지 갔는데도 결심을 바꾸지 않았으니 대개 아직도 야은 길재의 유품이 있는 것이다. 길재 선생은 단호히 말하길 충신은 두 입을 삼키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따르지 않는다 하였으니 장래에 남의 신하가 되고 부인된 사람을 감화시키는 바가 있다. 저 의관을 갖추고 띠를 두른 사내도 이익에 임하여는 본래 지키는 원칙을 일어버리는데, 향랑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한 조금은 부끄러울 것이다. 무신년 늦여름에 쓴다.

贊曰。史稱高麗注書治隱吉再之忠。隱於金鳥山以終。善之有節烈由來遠矣。今娘之貞。以至於入江而不化。蓋猶有冶翁之遺風焉。翁之言固曰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有以激將來爲人臣爲人婦者耳。彼冠裳鳴佩之夫。臨利而喪其守者。聞娘之風。亦可以少愧云。戊申季夏撰。

30) “里中趙家富賈，其子賢而多才，欲得娘爲婦顧不知娘意”(李安中, 「香娘傳」, 『海叢』冬)

남편이 있는데 재가한다면 열녀가 아닙니다. 의로운 일로 가난하고 괴로운 것은 즐거움이지만 의롭지 못한 일로 부귀(富貴)를 누리는 것은 취할 바가 아닙니다.”³¹⁾

위에서 숙부의 말은 향량의 재혼이 초혼의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향량은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것으로 혼인을 허락한 뒤 몰래 자결을 한다. 이는 향량의 의지가 현실적인 조건과는 무관한 본질적인 신념임을 말해준다. 또 향량은 허신(許身)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가를 거부했던 다른 전의 내용과는 달리,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열녀’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숙부의 권유를 거절하고 있다. 작자는 향량이 처음부터 열녀라는 도덕적 이상을 염두에 두고 소신을 실천하는 과정을 밝아갔음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향량이 몰가로 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른 전에 의하면 향량이 죽음을 맞이한 곳은 우연히 길재의 비(碑)가 있는 곳이었을 따름이지만³²⁾ 이안중의 전에서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꽃을 꺾으러 갔던 향량이 길재의 비를 보고 길재의 절의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저것은 길재 선생의 지주비(砥柱碑)다.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닳지 않았다. 저 돌이 닳아 없어질 때가 있을지언정 선생의 이름과 절의는 어찌 다할 날이 있겠는가?”³³⁾

향량이 의식적으로 길재의 절의를 찬양하도록 한 것은 나머지 다섯 편의 전이 길재의 유풍(遺風)을 언급하며 향량을 예찬했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나아가 이안중은 <산유화가>를 스스로 개작해서 실음으로써 향량의 죽음에 깔린 고독과 절망을 희석시키고 있다.

31) “以富金家不及趙家，以仁趙即賢。娘必許無二。’ 娘曰：‘妾有夫，再嫁非烈女也。且苟義貧苦爲樂，不義富貴，有所不取。’”(李安中，『香娘傳』，『海叢』冬)

32) “仍携兒至於砥柱吉治隱碑也”(趙龜祥，『香娘傳』，『海叢』冬)

33) “彼吉先生砥柱碑也。今千載尙不磨矣，且石有時而磨滅也，先生之名與節，豈有盡耶?”(李安中，『香娘傳』，『海叢』冬)

산에는 꽃 피었지만
나는 돌아갈 집이 없네
집 없는 이 몸은
꽃보다 못하네

산에는 꽃이 피었네
오얏꽃 복사꽃이 피었네
오얏꽃 복사꽃은 함께 피어있지만
복사나무에 오얏꽃은 피지 않으리

오얏꽃은 희고
복사꽃은 붉다네
홍백(紅白)이 서로 같지 않으니
떨어진들 복사꽃이 아니라³⁴⁾

이안중은 ‘산유화’라는 제목에 충실하게 노래를 개작했다³⁵⁾. 첫 곡에는 본래의 <산유화가>의 정서가 다소 남아 있지만 두 번째 곡과 세 번째 곡에서 향량은 오얏꽃과 복사꽃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절의를 복사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다른 전의 <산유화가>가 오갈 데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면 이안중이 개작한 노래는 죽음을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두려움도 회한도 없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안중은 산유화에 문식을 가하여 오히려 절박함과 격절감을 소거해버리고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안중의 전에서는 옛날의 곡조는 비루하므로 고친다고 하여 산유화의 개작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그의 의도적인 개작임을 의미한다. 향량이 재가를 거짓허락한 후 친구들과 꽃을 따다가 길재 선생의 지주중류비를 보고 “저것은 길재 선생의 지주비아 천년이 지났는데도 마모되지 않았네 또 돌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어 없어질지라도 선생의 이름과 절개가 어찌 다할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한 후 꽃을 꺾으며 친구들과 산유

34) “其一曰：‘山有花，我無家，我無家，不如花’，其二曰：‘山有花，桃與李花，桃李雖相雜，桃樹不聞李花’，其三曰：‘李白花，桃紅花，紅白自不同，落亦桃花。’”(李安中，『香娘傳』，『海叢』冬)

35) 임청(1649~1696)의 『창계집』(滄溪集)에 실린 시의 제목에 “山有花百濟舊曲也，有音而無詞”라는 말이 있다.

화를 지어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를 마친 후 물에 몸을 던져 죽는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안중의 전 역시 이광정의 전과 마찬가지로 자살에 이르기 전의 향량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다만 이광정의 산유화가 직접적인데 비해 이안중의 산유화는 향량의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출시키지 않고 자신이 운명과 신념을 꽃에 가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형태로 시상의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막연히 직접적으로 슬픔을 토로한 것과 달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작을 통해 내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 향량의 심리와 의식까지 담아내고 있으므로 산유화는 산문적 기술 속에 서정 갈래를 삽입함으로써 향량의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그 내면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안중의 전에서는 향량의 외로움과 절개가 더욱 부각되었고 죽음 이후에도 여러 아가씨가 와서 향량의 죽음을 알렸다는 것 외에 향량의 죽음 이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

반면 이광정은 향량의 죽음 부분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그 속에서 향량이 자신의 자살 이유를 명확히 밝히려 한 점을 특히 강조하고 향량의 죽음 장소를 길재 선생과 관련시켜 장황하게 설명하고 죽어서 시신이 된 향량의 모습과 조귀상이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정려를 받은 점 등을 드러내어 의도적으로 열려 향량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이에 비해 이안중은 향량의 죽음에 관한 사연과 이후의 상황을 생략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꽃을 꺾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후 물에 뛰어든 향량의 죽음 모습만을 묘사함으로써 마치 향량의 죽음을 신비스럽고 숭고한 의식처럼 표현해내었다. 개가를 거부한 향량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죽음을 낭만적이고 애상적인 분위기로 탈색시켰다.³⁶⁾

36) 부인은 일서부 상형곡 마을 사람이다. 혹은 봉계 사람이니 길재 선생과 같은 마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다. 죽을 때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죽은 날은 임오년 9월 6일이다. 부인이 죽은 후에 그 일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때 조귀상이 태수로 있었는데 이를 가상하여 겨 글을 써서 부인의 제사를 지냈다. 그 행실을 보고해 조정에 알리고 그림을 그려 세상에 전했다. 2년이 지난 갑신년에 상께서 정려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전에 길재 선생이 물러나 봉계에 지낼 때에 늘 책을 읽다가 충신은 두 입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두지 않는다는 부분에 이르르면 반복해 읽으며 뜻을 궁구하였다. 이웃의 여자가 때때로 문 아래에 이르러 귀 기울여 듣자 선생이 그 까닭을 물으니 여자가 말했다. “읽으신 책은 무슨 뜻인지

본 향량 이야기 뒤에 덧붙인 기사들로 인해 이광정의 작가의식이 잘 드러난다. 이광정은 조귀상이 서술한 글을 바탕으로 산유화곡까지 비슷하게 언급하였지만 그 뒤에 길재 선생의 이야기와 약가의 이야기를 덧붙인다. 또 김기년의 의우도 이야기까지 더 첨가하여 의도를 확실히 한다. 고독한 여자의 죽음은 소거되어 버리고 그녀의 의열을 찬미하기 바쁘다. 본 서사에 분명히 향량의 고독과 슬픔이 서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량의 고통을 다룬 짝진한

감히 여쭙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자 여자는 기뻐하며 자기 뜻에 맞는 듯 했다. 그 후에 여자의 남편이 변방에 수자리 살러 가자 여자는 문을 닫고 혼자 살았다. 남편이 돌아올 때는 마침 밤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남편이 부르며 문을 열라 하자. 여자는 안된다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남편이 멀리서 돌아오면 다른 집에서는 모두 신발을 거꾸로 신을 정도로 급히 달려나와 맞이하는데 당신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여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실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 여자는 밤에 삼가 남을 들어서는 안된다 합니다. 제가 이미 이 문을 닫았으면 밤에는 열지 않습니다. 오직 다음날에야 열 것입니다.” 마침내 문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런 까닭으로 이 여자가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겼다.

선산 동쪽 문수점에 농민 김기년이 암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하루는 밭에 나갔는데 호랑이가 소를 잡아가려 했다. 기년이 손에 든 쟁기와 보습으로 그것을 치자 호랑이는 소를 버려두고 사람을 쫓아왔다. 기년은 호랑이를 상대하지 못하고 오직 두 손으로 물지 못하게 막을 뿐이었다. 이때에 소가 크게 울부짖더니 분을 내어 앞으로 달려들며 들이받으니 호랑이가 견디지 못하고 버리고 숲으로 도망가려 했다. 소는 마침내 호랑이를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나는데도 아무 상처 없이 평상시 같이 일을 하고 여물을 먹을 뿐이었다. 기년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지 20일 만에 그것이 심해져 장차 죽게 되었다. 이때 가족에게 말했다. “아 나를 호랑이에게서 벗어나게 해 준 것은 소이다. 내가 죽어도 팔아버리지 말아라 늙어 죽거든 반드시 내 묘 곁에 묻어다오” 기년이 죽자 소는 물과 여물을 먹지 않고 사흘 동안 슬피 울다가 죽었다. 그 집에서 이 소를 묻어 주었다.

기이하다! 이 때에 조귀상의 할아버지인 조찬한이 선산부사였는데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그 소의 일을 그리고 이를 의우라 하여 그것을 위해 서문을 지었다. 그로부터 73년 후에 손자 조귀상이 이어서 이곳의 태수가 되었을 때 입열부의 일이 생겼으니 사람들은 이를 기이하게 여긴다.

婦一善之上荊谷里人也。或曰。鳳溪人。與吉先生同里云。死時年二十。其死之日。壬午九月六日。婦死之後。其事遂顯。聞于州。時趙龜祥爲守。嘉之。爲文祭婦。狀其行。聞于朝。圖書以傳世。越二年甲申。上命旌閭。始吉先生退居鳳溪。每讀書至忠臣不事二君列女不更二夫。三復致意。鄰有女子輒至門下。傾耳聽之。先生問其故。女子曰。敢問所讀書何意。先生爲解之。女子欣然若會其意。其後女子有夫戍邊。女子閉門獨居。及夫還。會夜門閉。夫呼令開門。女子不可。夫曰。良人遠來。人家皆顛倒以迎。汝獨閉門何也。女子曰然。吾固望子。然吾聞女子慎夜不出入人。吾既閉此門。夜不開也。猶有明日。遂不開門。人是以女爲聞先生風者。善之東。有文殊店。農人金起年畜一牝牛。一日往于田。虎攫其牛。起年手耒耜以搏之。虎舍牛而從人。起年無以應虎。惟兩手抗其吻。於是牛大呼奮前角之。虎不能支。舍而走林中。牛竟觸斃其虎。牛無所傷。猶服役飲吃自若。起年病創歸二十日。創甚將絕。語其家人曰。噫使我免於虎口者是牛也。我死勿賣。老斃。必瘞吾墓傍。起年既死。牛絕水塋。哀鳴三日。乃死。其家葬之。異哉。時龜祥繼繼韓爲府使。奇之。畫其牛。號曰義牛。爲之序。其後七十有三年。龜祥繼繼爲。守有林烈婦事。人奇之。

기사 내용과는 달리 의론 부분에서는 길재와 의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향랑의 삶에 공감하고 슬퍼하면서도 전혀 다른 논조로 의론부를 전개시켰다는 것은 한 젊은 여자의 자살 사건을 열녀의 죽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의론을 전개시켜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안중의 논찬에서는 절의와 관련된 인물과 짐승의 명칭 정도만 언급하고 있고 이광정의 논찬은 향랑의 사건에 대한 언급보다 부가적인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단순한 비극이 아닌 열행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절개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상에서 6편의 전이 의론에서 ‘烈’이라는 고정된 시각으로 향랑의 죽음을 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안중의 경우는 서사에 적합한 의론을 펼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고정된 의론에 맞추어 서사를 변형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안중의 『향랑전』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양하고 흥미 있게 전개해가고 있다거나³⁷⁾, 다른 작품에 비해 독창적이라거나³⁸⁾, 구전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서술을 이룩했다³⁹⁾는 등의 장점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작품의 완성도나 미학적 가치를 떠나 작가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안중은 향랑의 죽음을 미화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작가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향랑전』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텍스트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조선후기에 하층여성의 의식까지 지배하게된 열 이데올로기의 한 형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민여성의 현실과 열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는 양상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죽음에까지 이른 여성의 비극적 삶을 보는 남성사대부 작가들의 시각이 실상과 얼마나 큰 괴리를 지니고 있는가를

37) 박준원, 『朝鮮後記 傳의 事實受容樣相』, 『韓國漢文學研究』12, 1989.

38) 이춘기, 『『三韓拾遺』에 끼친 背景說話의 影響』, 『한양어문연구』9, 1991.

39)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보여주는 주요한 예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 향랑의 죽음의 원인을 내면화된 열 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한 평민세계에서의 소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랑의 죽음은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열녀의 죽음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랑의 입전자들은 그녀의 죽음을 정절을 지키기 위한 죽음으로만 보고 이를 미화시켜 찬양했는데, 이는 남성이며 사대부였던 작자들이 여성이며 평민이었던 향랑의 현실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향랑전』은 양란 이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지배계층의 논리를 강화하는 문학적 기제로 널리 향유된 텍스트이다. 특히 향랑이 평민층 여성이라는 점에서 ‘烈’ 관념이 사대부층은 물론 평민층에게까지 폭넓게 수렴된 양상을 보여준다.

본고는 향랑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텍스트 본질에 근접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선행 연구가 주로 작가적 측면에서 입전의 의도를 당대 열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해석했다면, 이 논문은 주로 텍스트적 측면에서 향랑의 심리에 대해 천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민 여성의 죽음의 의미조차도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양상을 파악하고, 향랑의 절망스런 삶과 회한에 찬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재고했다.

〈참고문헌〉

- 金民澤, 『烈女尙娘傳』, 『竹軒集』
李光庭, 『林烈婦薈娘傳』, 『訥隱集』
李安中, 『香娘傳』, 『海叢』
尹光昭, 『烈女香娘傳』, 『素谷集』
이옥 지음,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完譯 李鈺全集』, 휴머니스트,
2009.
趙龜祥, 『香娘傳』, 『海叢』
趙龜祥, 『猶賢集』,
박준원, 『朝鮮後記 傳의 事實受容樣相』, 『韓國漢文學研究』12, 1989.
박옥빈, 『향랑 고사의 문학적 연변』,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2.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민족문학사 연구』9, 창작과 비평사,
1992.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이춘기, 『『三韓拾遺』에 끼친 背景說話의 影響』, 『한양어문연구』9, 1991.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조혜란, 『三韓拾遺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최지너, 『香娘』을 형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 향랑전과 향랑전설』, 『국문학연
구』 제19호, 국어국문학회, 2009.

【국문초록】

향량의 이야기는 18세기 문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각종 장르의 문학작품의 소재로 채택되었다. 「향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향량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토록 사대부에 의해 찬미되었던 강한 의지의 ‘열녀로서의 향량’이 아니라 그 동안 간과되었던,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죽음 앞에서도 두렵고 외로웠을 뿐인 한갓 젊은 여인이었던 ‘향량’의 모습이 중심이 된다. 그녀는 이처럼 죽음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그녀가 주변 사람들의 개가 요구를 거절했던 것도 절의의 실천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본고는 그녀가 죽음을 택하게 되는 까닭을 해명하고 죽음 앞에서의 향량의 태도와 그것을 보는 작자의 시각을 통해 「향량전」에 나타난 죽음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 향량의 죽음의 원인을 내면화된 열 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한 평민세계에서의 소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량의 죽음은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열녀의 죽음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량의 입전자들은 그녀의 죽음을 정절을 지키기 위한 죽음으로만 보고 이를 미화시켜 찬양했는데, 이는 남성이며 사대부였던 작자들이 여성이며 평민이었던 향량의 현실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향량전」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텍스트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조선후기에 하층여성의 의식까지 지배하게 된 열 이데올로기의 한 형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민여성의 현실과 열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는 양상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죽음에까지 이른 여성의 비극적 삶을 보는 남성사대부 작자들의 시각이 실상과 얼마나 큰 괴리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주요한 예가 되기도 한다.

‘열’이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와 결합하면서 부정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의를 지키는 일에서는 일찌감치 벗어나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밭 딛고

있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지만 그녀는 죽음의 의미조차도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었다. 본고에서는 향량의 절망스런 삶과 회한에 찬 죽음에 대한 의미를 짚진하게 해석하고자 했다.

주제어 : 향량, 이안중, 서사와 의론의 불일치, 열녀, 자살, 하층여성

【Abstracts】

The Meaning of death in 「Hyang-rang Jeon」

Kim, s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aspect in Hyang-rang jeon. In understanding Hyang-rang jeon, to find out the meaning of Hyangrang's death is the key factor.

This paper focuses on Hyang-rang's figure that we have missed, not a virtuous woman noblemen respected her strong will but a scared and lonely woman who couldn't help choosing the death after failing to live happily as a ordinary woman.

Hyang-rang hesitated in front of death and it was far away from keeping her chastity for her to refuse the remarrige people asked for. This paper find out the various meaning of death represented in Hyang-rang jeon through the writer's viewpoint on Hyang-rang's attitude toward death and explain the reason of death she chose.

This paper researches the reason of her death by looking on the side of 'isolation from a world of common people' and 'inernalized Yeol(烈) ideology '.

Therefor Hyang-rang's death can be different from virtuous woman's one on the viewpoint of social custums. The writers of Hyang-rang jeon glorified and admired Hyang-rang's death because of Keeping her chastity, this is why they're all men and noblemen. They distorted the stories of

Hyang-rang who was a woman and common person.

Key words : Hyang-rang, Lee An-Jung disagreement of Narrative, virtuous woman, suicide, a Lower Class Woman Subjectivity

이 논문은 2013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